

1번이와 100번이

글 그림 짚며느리

발행일 2022.11.30

이메일 주소 mallowday@naver.com

"관악문화재단 글빛정보도서관의

<1관 1단>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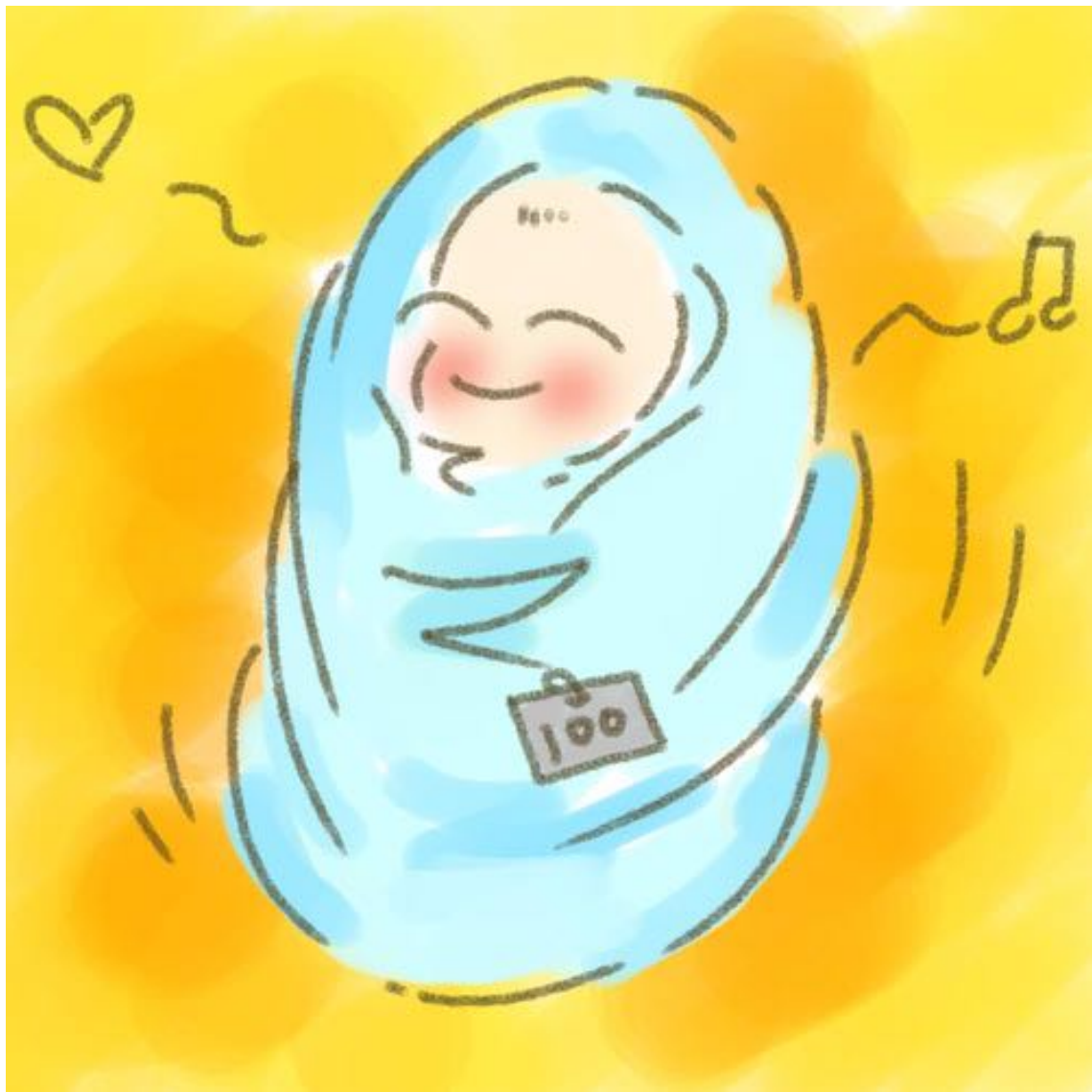
1번이와 100번이



글 그림 쌀며느리



1번이는
불안함 속에
태어난 첫 세포이고



100번이는
존재감이 확실한
또 하나의 세포이다.

1번아,
얘는 왜 계속 웃을까?



축 어린이집 졸업



1번이는
부모로서 느끼는
모든 첫 감동의 주인공이고



100번이는
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.



너, 가방 어디 있니?



내일 학교 갈 준비 끝!

1번이와 100번이는
서로 다른데

너.. 애 2배야, 못 들어...
그리고 안은 거 아냐
잡고 있는 거야.

엄마, 나도
100번이 똑같이
들어서 안아줘.



서로 같기를 바란다.





1번이는
100번이한테
식욕과 개념을
좀 주고,

100번이는
1번이한테
애교를 좀
주고...

1번이와 100번이는
서로 다르지만
너희에게 바라는 건
똑같아.

내 인생
최고의 순간은
딱 2번!



엄마가
1번이와 100번이
덕분에 그러했듯



엄마,
돼지야?



행복하길 !

소아 응급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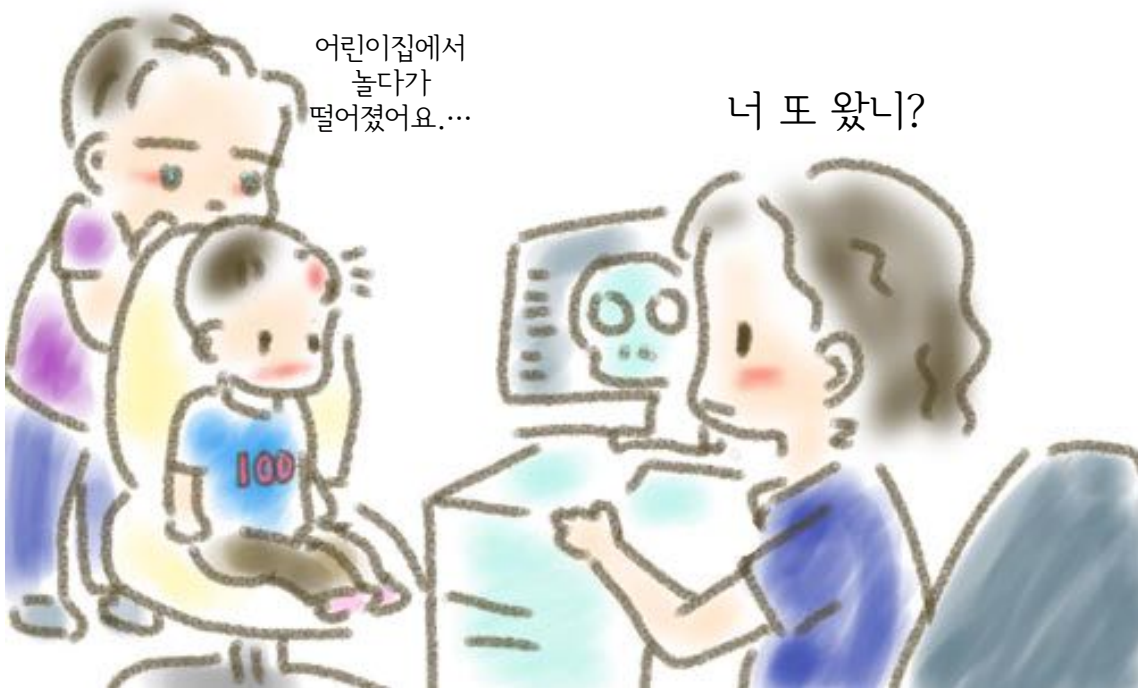
100번아,
여기 너무 자주
오는 것 같지 않니?



무엇보다 건강하게!

어린이집에서
놀다가
떨어졌어요...

너 또 왔니?



엄마, 나 여기
다쳤어. 아파!

어디?

안 보이는데?
안보여~



혹시
살다가
아프고
힘들 때나



엄마가 조금,
(아니 많이)
이상 할 때에도

아프다고!

알았어,
호~



이것만
기억해 줘.

엄마가
처음부터 끝까지
100% 사랑하는 건
1번이랑 100번이
뿐이라는 거





쌀며느리 박상미

쌀집 아들과 결혼해서 1번이와 100번이 낳고
육아부적응자 지만 육아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

